

갯창아벤치 프로젝트 결과자료집

갯창아벤치
갯창문화관광재단
GATCHANG CULTURE & TOURISM FOUNDATION



2023년 갯창아벤치 프로젝트

결과자료집



5644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모암성로 11(2층) (재)갯창문화관광재단
TEL 063-561-1110 FAX 063-561-5556 WEB gctf.or.kr



관찰아 벤치 프로젝트 결과자료집

☀ 들어가며...

이 책자는 23년도 전북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광역-기초 문화재단 협력사업] 관촬야 벤치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결과자료집입니다.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주관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 (재)고창문화관광재단

— 목차

01. 사업소개 _____ 04p

사업내용 05p

추진과정 08p

02. 프로그램 구성 _____ 10p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1p

03. 돌아보고 다시보기 _ 30p

참여자 리뷰 31p

홍보물 아카이브 38p



01



추진
배경

- 광역·기초 재단간 사업운영을 통해 인적자원 및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다양성 확보



- 문화예술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 발굴
-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로 지역에 다가가는 다양한 경험 제공



개요

- 사업명
관람차 벤치 프로젝트

- 장 소
자유중학교 일원

- 대 상
1,2,3학년 동아리 학생

- 참여자
 - 고창문화관광재단 2명
 - 사회적기업 <사각사각> 목공강사 2명
 - 청년문화공동체 <짓다> 퍼실리테이터 6명
 - 미술강사 3명
 - 무용강사 2명



- 내 용
 -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벤치를 만드는 수업을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해 무용미술, 스토리텔링으로 학교 내 친구들, 지역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인드를 길러내는 결과물 완성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고창문화관광재단, 사회적기업, 청년문화공동체,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

관찰아 벤치 프로젝트



Alright
Bench Project

개발
단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6월~7월)

- ▲ 프로그램 참여 인력 선정
- ▲ 학교 측 사업설명 및 협조 요청
- ▲ 재단-학교-참여단체 커리큘럼 개발 회의

추진
과정

운영
단계



워크숍 진행
프로그램 실행(8월~10월)

- ▲ 1·2·3차 워크숍 진행
- ▲ 안전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결과
공유



결과공유회 진행(11월)

- ▲ 자유중학교 행사(리더십데이)와 연계해 결과공유회 진행
- ▲ 사업 결과공유 및 전시회 진행

02

관찰이벤치 프로젝트



프로 그램 구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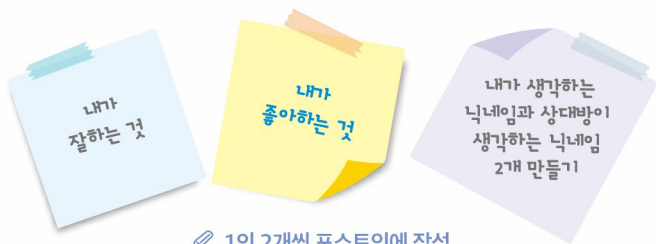
구분	차시	프로그램명	교육내용
오리엔 테이션	1	아이스 브레이킹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① 재단 및 참여 인력 소개 ② 24명이 2인 1조로 팀을 꾸려 대화 후, 프로그램 기간 내 사용할 닉네임 만들기 · 내가 잘하는 것 · 내가 좋아하는 것 · 내가 생각하는 닉네임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닉네임 2개 만들기 · 1인 2개씩 포스트잇에 작성 ③ 48개 포스트잇 결과물 전시 ④ 질문지 답변 및 상대방 닉네임 선정 이유 발표 ⑤ 전체 투표 진행으로 닉네임 최종 선정
	2	무용 '표정벤치' 만들기 자아탐색 및 타자인지를 위한 표현하는 단계	- 자아탐색을 위한 나를 표현하는 움직임 만들기 - 타자를 인지하고 공감하기 위한 표정벤치 만들기
워크숍	3	회화 내 손바닥 안' 벤치 디자인사고 시도 및 구체화 단계	- 내가 원하는 벤치 형태 탐색 및 예시 공유 -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벤치드로잉 작업 (문구/디자인/컬러 스케치 후 채색) - <관찰아 벤치 사용 설명법> 작성 등

구분	차시	프로그램명	교육내용
목공 실습	4	목공 실습-1 함께 앉아도 '관찰아 벤치'	- 목재 재단 및 사포 작업
	5	목공 실습-2 함께 앉아도 '관찰아 벤치'	- 목재 조립 등
	6	목공 실습-3 함께 앉아도 '관찰아 벤치'	- 목공 마무리 작업 - 페인트 채색 및 디자인 작업
결과 공유	7	결과공유회 리더십데이 연계	- 자유중학교 자치행방사(리더십데이)와 연계하여 결과공유회 개최 - 사업 결과공유 및 전시회 진행

오리엔테이션- 아이스브레이킹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2인 1조로 팀을 꾸려 대화 후, 프로그램 기간 내 사용할 닉네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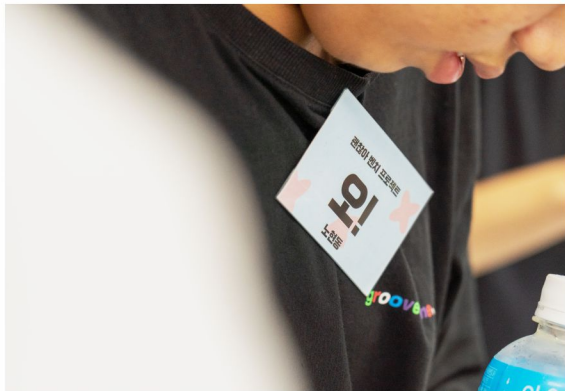


1인 2개씩 포스트잇에 작성

- ▶ 48개 포스트잇 결과물 전시
- ▶ 질문지 답변 및 상대방 닉네임 선정 이유 발표
- ▶ 전체 투표 진행으로 닉네임 최종 선정

참여인원 총 33명 (재단 2, 학생 22, 퍼실리테이터 6, 미술강사 3)





1차 워크숍 - 무용

'표정벤치' 만들기

- 자아탐색 및 타자인지를 위한 표현하는 단계
- 참여인원 총 35명 (재단 2, 학생 22, 퍼실리테이터 6, 미술강사 3, 무용강사2)





2차 워크숍 - 회화

'표정벤치' 만들기

- 자아탐색 및 타자인지를 위한 표현하는 단계
- 참여인원 총 35명 (재단 2, 학생 22, 퍼실리테이터 6, 미술강사 3, 무용강사2)





1·2·3차 목공실습 및 디자인 작업

함께 앉아도 '관찰아 벤치'



참여인원 총 35명

(재단 2, 학생 22, 퍼실리테이터 6, 미술강사 3, 목공강사 2)



팬텀아 벤치 프로젝트 활동모습



결과공유회

자유중학교 행사(리더십데이)와 연계해 결과공유회 추진

사업결과 공유 및 벤치 전시회 진행

참여인원 약 400명(학생, 학부모, 학교·교육청·재단 관계자 등)



03

돌아보고 다시보기

참여자 리뷰

직접 디자인하고 손수 만든다.

WE
CAN DO
IT



위로를 전하는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





글 최 이수

고창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

치유되는 그 이름,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프로젝트 이름 '괜찮아 벤치'를 보니, 왠지 그 벤치에 앉으면 무엇이든 치유될 것만 같았다. 그렇게 프로젝트에 지원한 후, 나는 자유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술강사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함께한 아름다운 사람들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는 벤치를 만들기만 하는 단순 목공체험이 아닌, 몸으로 느껴 보기, 드로잉으로 아이디어 표현하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나의 역할은 학생들이 벤치 작업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드로잉 강의를 하고, 활동 중 미술적 요소를 주는 것이었다.

드로잉 강의를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많은 생각을 했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그리는 방법이 아닌 벤치에 담고 싶은 마음부터 적용하고 싶은 기능까지를 논의하고 여러 의견을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가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벤치는 하나의 가구가 아닌 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미학적 관점으로 성장해 나갔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까지 발전될 수 있었다.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가 단순한 목공과 다를 수 있는 건 이런 논의가 실현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만드는 '괜찮아 벤치'는 벤치에 앉아 치유 받을 사람들과 먼저 함께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다양한 마음을 담고자 노력한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 같다. 프로젝트의 치유 효과는 퍼실리테이터로 함께해 준 고창청년 공동체(짓다)의 선생님들이 계셔서 더욱 빛났다. 학생들과 함께 다투기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 멋진 촉진자 역할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에서 운영까지 고창문화관광재단의 꼼꼼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간식과 장갑, 마스크, 앞치마, 야외 활동을 위한 선풍까지 배려의 왕이 아닐 수 없다.

재단의 배려와 자유중학교 학생들이 함께한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의 과정을 친구들의 이야기와 함께 돌아본다.



모두의 마음을 담아요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를 통해 먼저 디자인의 기본인 형태 그리기 방법을 익히고, 벤치와 연관된 이미지를 떠올려 가며 나만의 이미지를 그려보았다.

그리고 모듈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의견을 모았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친구들은 이 부분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모듈 안에서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더 좋다면 토론하는 모듈이 있는 반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던 모듈까지...서로 다른 고민으로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모듈이 그들만의 이야기와 기능을 담은 드로잉을 완성시켰다.

참여했던 3학년 준이는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설명할 때 힘들었지만 모듈의 친구들이 '잘했다', '예쁘다' 이런 격려와 칭찬으로 함께 해줘 보람되었다"라고 말했다. 직접 제작에 도움을 준 목공 선생님들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벤치의 모습을 기대하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색연필로 만든 것 같은 화려한 디자인부터 친구들과 과자를 나눠 먹기 편리한 구조의 벤치, 휠체어를 타셨던 엄마를 생각한 벤치, 크기를 키울 수 있어 많은 친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벤치, 의자의 형태와 색이 유명 햄버거 브랜드를 닮은 벤치까지 어느 하나가 비슷하다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생각들로 표현 되었다.



나의 첫 톱질, 망치질, 그리고 친구들의 배려

중학생 친구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벤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괜찮아 벤치 프로젝트’의 가장 큰 매력은 나만의 아이디어를 담아 목공을 직접 해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목공은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먼저,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준비하고 디자인이 확정된 후, 목재, 톱, 드릴, 망치, 나사 등을 준비한다. 자신의 손으로 목재를 절단하고 조립하면서 벤치가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다.

함께 고민한 디자인을 직접 제작해보고, 나만의 창작물을 갖게 된 것은 모두에게 뿌듯함을 안겨 주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한 학생들은 목공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예술적인 감각을 키워 나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함께 했던 3학년 은솔이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 고민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친구들의 도움과 선생님들의 지원이 있어 든든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뜨거웠던 여름 8월부터 10월까지 우리들의 이야기

“단순히 사람들이 쉬는 공간에 벤치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능을 담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만들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강현 (자유중3)

“처음엔 당황스럽고 어색하였지만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의 친절한 안내와 도움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벤치를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상상했던 것처럼 완성돼서 놀라웠습니다.”

박은솔 (자유중3)

“저희 모둠의 벤치는 일반적인 편안함과 거리가 멀어요. 벤치의 절반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한쪽은 비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셔서 휠체어를 타셔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벤치의 한 공간을 파서 거기 휠체어의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편안함을 위한 벤치보다 메시지를 전하는 벤치가 완성된 것 같아 좋습니다.”

최 준 (자유중3)

“같은 모둠 친구들끼리 벤치의 각자의 설계도를 그려서 각자만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공유했잖아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강현 (자유중3)

“똑같은 벤치의 형태에 그림만 다른 디자인으로 모둠의 아이디어가 표현 될 줄 알았는데, 모둠마다 다른 형태의 디자인이 나오고 그 디자인이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질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김진욱

함께한 사람들

함께 마음을
담아 제작한

강창희	김도균	김민석
김병길	김서진	김성운
김승빈	김은영	김지후
김태우	김현호	김효엽
노현동	박세환	박은솔
이강현	이종빈	이형기
정음찬	최 준	최명환

함께
이끌어 주신

목공_사회적기업 <사각사각>
권순용, 한승철

퍼실리테이터_청년문화공동체 <짓다>
김진욱, 권선화, 김인정, 양하린, 유정은, 이세진

미술강사
김병휴, 김정하, 최이수

무용강사
강영진, 박성현

고창문화
관광재단

문화사업팀
이준호, 박민



관찰아 벤치 프로젝트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발행인	심덕섭
주소	56441 전북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361 전북대 고창캠퍼스 도서관 2층
전화	063-561-1110
기획진행 문화사업팀	이준호 박민
제작	디플광고

본 자료집은 '2023년 전북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광역-기초 문화재단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은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소유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